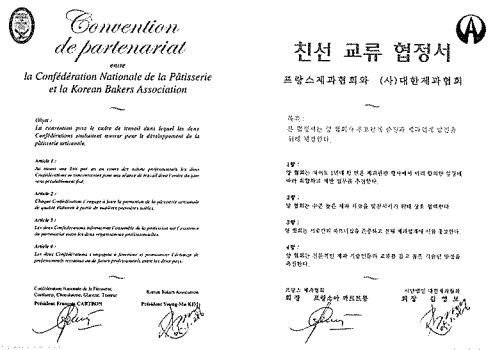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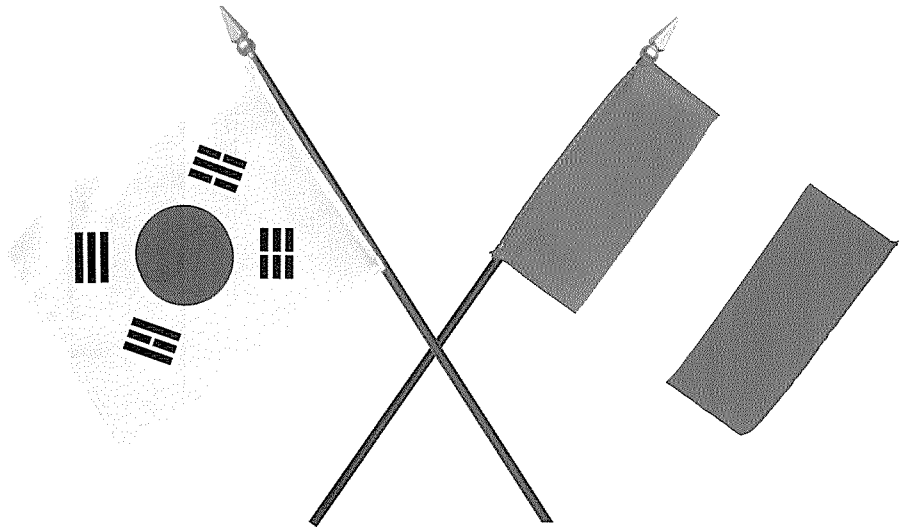


프랑스제과협회와 조인식 갖고 정식 교류

# 세계로 뻗는 한국제과업계의 위풍당당한 미래

지난 1월 28일 (사)대한제과협회와 프랑스제과협회가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제과협회 회관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사)대한제과협회 창립 43년만에 이룬 한국제과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로 프랑스제과협회와 정식 교류를 체결함으로써 양 협회 간의 기술 발전과 우호 증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_김영주 기자 · 사진 제공\_김영훈



지난 1월 28일 파리 마뤼 오팡 거리에 위치한 프랑스제과협회 회관에서 (사)대한제과협회와 프랑스제과협회가 정식 교류를 체결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사)대한제과협회 창립 43년 만에 이룬 한국제과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로 우리 제과업계의 기술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유럽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조인식에는 프랑스제과협회 프랑소와 카르트롱 회장과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프랑스제과협회 미셸 베뤼에 수석 부회장, 로베르 마르티 부회장 겸 르 주르날 뒤 파티세리 편집장, ENSP 파스칼 리양조 교장, 강남·서초지회 홍종식 지회장, 월드페이스트리컵 한국대표 선수단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조인식에 앞서 프랑소와 카르트롱 회장은 김영모 회장과 한국 방문단에게 직접 협회 임원단과 직원들을 소개하고 프랑스제과협회 회관의 곳곳을 안내함은 물론 프랑스제과협회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김영모 회장과 프랑소와 카르트롱 회장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양국간의 기술발전과 우호증진을 골자로 한 협정서를 서로 확인하고 서명했다. 역사적인 조인식을 마친 양국 대표들은 각각 준비한 도자기와 기념 메달 등 선물을 서로 교환하고 축배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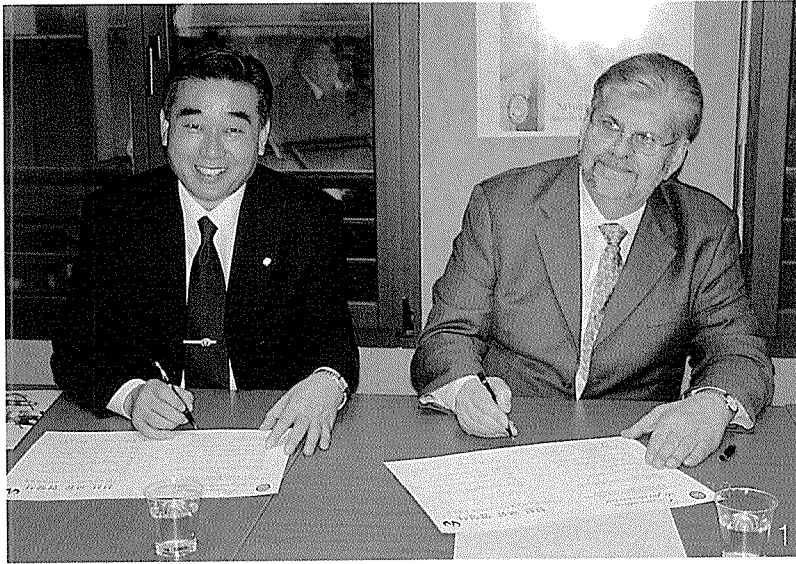
이번 협정을 통해 양 협회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제과관련 행사에 미리 합의한 일정에 따라 교류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수준 높은 제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서로간의 협력 관계를 존중하고 전체 제과업계가 이를 홍보하게 되며 전문 제과기술인들의 교류와 젊은 기술인 양성에 힘쓰게 된다.

## Le Journal du Pâtissier 협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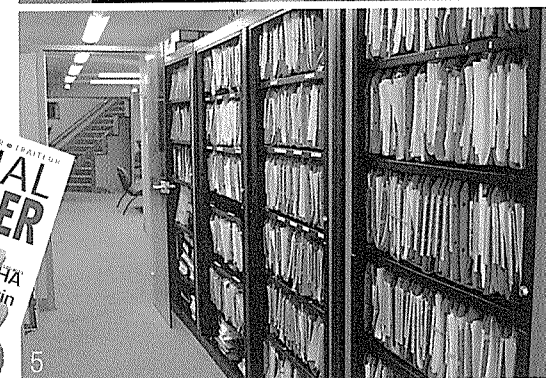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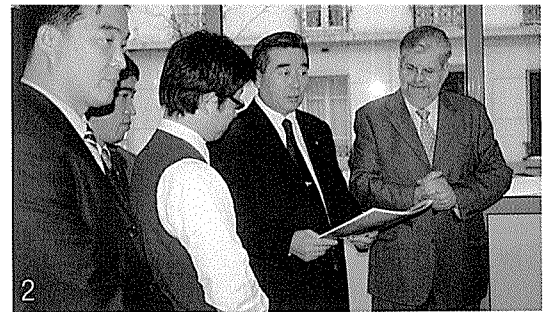
- 프랑스 대회 정보 제공
- Le Journal du Pâtissier에 나온 제품 소개
-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독 가능

## ENSP 협의 내용

- 주니어 대회 최우수상 수상자들 무료 연수
- ENSP 강사진들의 제품 소개
- ENSP가 한국 진출시 (사)대한제과협회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1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사진 왼쪽)과 프랑스제과협회 프랑소와 카르트롱 회장(사진 오른쪽)이 양국간의 정식 교류를 체결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2 조인식에 앞서 프랑소와 카르트롱 회장이 직접 프랑스제과협회 사무실과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3 김영모 회장과 프랑소와 카르트롱 회장이 협정서에 사인을 마치고 교환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4 정식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김영모 회장이 프랑스와 카르트롱 회장에게 도자기를 선물했다. 5 프랑스제과협회의 자료실 전경. 6 조인식에 앞서 1월 18일 김영모 회장(사진 오른쪽)은 ENSP를 방문해 파스칼 리앙조 교장(사진 왼쪽)과 제과협회와의 협의내용을 의논하고 ENSP와의 교류도 협의했다. 7 ENSP 앞에서 기념 촬영. 8 (사)대한제과협회를 통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될 예정인 프랑스 최고의 제과전문지인 <르 주르날 뒤 파티시에>. 9 프랑스제과협회에서 교류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측에 선물한 기념 메달.



프랑스제과협회와 교류 체결에 이어 프랑스제과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프랑스 최고의 제과전문잡지 <르 주르날 뒤 파티시에 Le Journal du Pâtissier>와 프랑스크립제과학교인 ENSP와의 교류도 협의했다.



<르 주르날 뒤 파티시에>는 (사)대한제과협회에서 발행하는 <베이커리>와 서로의 기사와 정보를 교환하고 (사)대한제과협회를 통해 국내 독자들에게 2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최고의 시설과 강사진을 자랑하는 프랑스크립제과학교(ENSP)에서는 (사)대한제과협회가 주최한 대회의 주니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무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베이커리>를 통해 일류 강사진들의 제품과 레시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ENSP가 한국 진출 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징검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조인식을 통해 명실공히 제과 중추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와 정식 체결을 맺게 됨으로써 발전된 선진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제과기술인들의 교류도 활발해져 국내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국제 제과업계의 커다란 축인 프랑스와 교류를 통해 한국 제과업계의 국제적인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8

9